해남 '청년이 행복한 해남 만들기' 223억 투입

주거,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등 청년정책 4개 분야 47개 사업

해남군은 올해 223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남군이 올 추진한 청년정책은 주거, 일자리 · 창업,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 47개 사업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하고, 주거와 일자리, 문화에 이르는 각종 청년 정책들을 총괄 추진해 청년세대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올 신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151억원을 투입하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해남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연립주택 3동, 60세대 규모로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자리 · 창업 분야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징검다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선보여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 · 복지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취창업 상담 및 지원, 각종 취미 · 여가 강좌 운영,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 대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면단위 청년문화공간인 청년 두드림하우스를 조성한다. 농촌유휴공간 개보수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문화 공간을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발급,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팀을 신설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시행하게 된 만큼 올해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해남, 청년이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공무원, 제설작업 '구슬땀'

비상근무 돌입… 군민 안전 · 교통 불편 최소화 총력

무안군은 설 연휴가 끝난 25일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대설경보에 따라 전 공무원의 1/4인 20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작업을 한데 이어 25일 출근을 앞두고 눈 치우기에 나섰다.

김산 군수는 간부공무원과 무안읍내 시가지 주요도로를, 읍면에서는 각 읍면 직원들과 해당 시가지 주변을, 남악오룡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남악소재지 주변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김산 군수는 "눈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신속히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파주의보도 발효된 상황이니 군민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작업인원 21명과 제설차 10대를 투입해 21개 노선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6.7cm의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08시 기준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 피해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

/무안=박태언 기자

영암, 귀농·귀촌인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내달 10일 까지 모집

영암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사기 진작을 위한 2023년도 귀농 · 귀촌인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귀농 · 귀촌인을 포함한 관내 거주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품목별 학습동아리로, 학습동아리당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암군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의 귀농 · 귀촌인이 포함됐거나, 여성귀농 · 귀촌인으로 구성된 모임체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귀농 · 귀촌인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통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귀농 · 귀촌인을 안정적으로 영암에 정착시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과 귀농 · 귀촌인의 정보습득 및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귀농 · 귀촌인 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061-470-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군외면에 향토 수종 '완도호랑가시나무숲' 조성

2억5000만 원 들여 영풍리 등 50ha에 3500주 식재

완도군 군외면에 향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숲'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25일 군외면 영풍리 등에 50ha 규모의 향토 수종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영풍리 마을숲에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완도호랑가시나무 35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완도군은매년 10ha이상 산림에 완도호랑가시나무숲을 조성해 향토 수종 조림지역을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완도군은 특색 있는 녹색 경관을 만들기 위해 완도읍 시가지 진입로와 완도수목원 진입로에 완도호랑가시나무 거리를 조성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겨울철 짙은 녹색의 잎과 빨간 열매가 어우러져 관상 가치가 높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지난 1978년 천리포수목원 민병길 교수팀이 완도로 식물 답사를 왔다가 발견했다. 이후 미국 학회에 소개되면서 완도 지명이 붙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 지역의 소중한 향토 수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완도군이 국내 최대 난대림 지역인 만큼 국립난대수목원을 중심으로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지역문화 활력 촉진사업' 10억 확보

'음악도시 강진' 도약…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앞당겨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12일까지 총 6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14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과 고흥, 곡성, 화순, 해남군이 선정됐다.

강진군은 '생활 속에서 즐기는 음악문화'와 '음악인들이 살고 싶은 음악도시 강진'을 핵심 주제로 4개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내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강진문화 히어로>, 문화예술인의 거주, 활동,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강진, 살자>,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악도시 강진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강진 문화 실험실>, 마을 문화 쇼케이스와 아트마켓, 포럼 등을 포함한 <하멜 문화예술 박람회>를 주축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2023 강진군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해당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세부 내용을 점검 ·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미국 중서부의 소도시 브랜슨 시티의 경우, 은퇴한 뮤지션들이 정착하면서 음악과 공연이 넘치는 관광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면서 "음악으로 강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선제적 대응으로 2016년 이후 전염병 발생 안해

진도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은 설 명절 전 · 후 농장과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의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의 축산농장 방문 자제 등을 홍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가금농장의 축사 내 · 외부 청소와 소독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 지도와 함께 예찰을 강화하는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장 주변 소독지원과 거점 소독시설 · 농장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진도군은 지난 2016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진도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